

몽골 승려-러 지성인 사이 어떤 교류가?

매튜 킹 조교수, '몽골 승려와 러 지성인 간 학술적 교류' 연구 착수

몽골과 티베트에서 20세기 초 승려들과 유럽 지식인들 간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캘리포니아리버사이드 대학의 종교학 전공 조교수인 매튜 킹(Matthew King)은 불교 승려와 러시아 지성인들 간 교류 흔적을 발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에 착수, 비영리단체 기관 '사회과학 조사 심의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신문 'UCR Today'는 3월 2일 "20세기 초 몽고와 티베트 불교 승려들은 유럽인들과 슬라브계 지성인들과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류가 오늘날 학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과학조사 심의회"는 매튜 킹 박사가 진행하는 '몽골-티베트 승려와 러시아 지성인들 간 학술적 교류 연구'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매튜 킹 조교수는 사회과학조사 심의회로부터 3만7500달러의 연구지원금을 받았으며, 유라시아 '해석 공동체'를 연구할 계획이다. 그가 조사하는 유라시아인 '해석 공동체'는 몽골 스텝 지대(유럽 동남부·시베리아)와 히말라야 고원에 있는 불교 지식인들과 유라시아-슬라브계 학자들 간의 불교사적 연구와 알타이

어족의 연구를 하는 모임이다.

매튜 킹 교수는 앞으로 4개월 간 몽골 국립도서관과 가단텍친렌(Gadanteg chinlen) 사원에서 머무르며 4개의 몽골 사원에서 쓰인 4천 페이지가 넘는 경전과 몽골 정치 혁명가들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럽-러시아 지성인과 몽고 지역신문인 '더 뉴 미러(The

몽골 승려-러 지성인 교류 흔적 매튜 킹, 4개월 간 체류하며 불교 경전·'해석공동체' 등 연구 사회과학자사회, 약 4만 달러 지원

new Mirror) 등을 통해 몽고 인민공화국에 대해 조사한다.

매튜 킹 교수는 "더 뉴 미러 신문에서는 몽골의 진보·보수 세력 승려들 간의 논쟁을 싣고 있다. 이 부분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며 터키식 무덤에 남겨진 고문서 등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존재했던 과학자들과 혁명가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 제국이 몰락한 20세기 초 몽골인들은 범 몽골주의(Pan-Mongol Move



캘리포니아리버사이드 대학의 종교학 전공 조교수인 매튜 킹(Matthew King·사진 왼쪽)은 불교 승려와 러시아인 지성인들간 교류 연구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사진출처=UCR Today

ment)의 기치아래 유라시아 중앙에 모든 몽골인을 포괄하는 민족국가 수립을 추구했다. 킹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매튜 킹의 프로젝트인 '오래된 제국과 새로운 추론: 아시아 내륙지방에서의 유럽 아카데미와 불교 수도원간의 교류(1911-1940)'에서는 킹 교수가 유라시아 '해석공동체'의 작업을 연구함과 동시에 아시아 문학을 연구했던 러시아 학자인 미하일 투비안스키(Mikhail Tsvyansky)와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매튜 킹은 "이 시기는 청나라와 제정 러시아의 붕괴로 지역 독립운동이 일어

나던 시기였고, 국가 사회주의의 불평등한 통합으로 승려들과 사원의 폭력과 탄압을 초래했다"며 "이번 연구는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흩어져있던 몽골과 티베트 지역문화와 사회주의 혁명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알타이족 언어 등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튜 킹은 2014년 캘리포니아리버사이드 대학의 종교학 전공 조교수로 부임했다. 티베트 몽골의 제국사회주의 시대의 불교 운동, 불교와 과학, 아시아 내륙 지역학 및 불교 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깨달음으로 가는 불서 12권

허핑턴포스트, 초심자 위한 불교도서 소개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달리 불교는 종교의 기초적인 이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대표적인 경전이 없다. 사람들이 오늘날 '불교'라고 부르는 것은 선불교부터 대승과 소승불교에 걸친 생각과 철학을 모두 일컫는 것들이다.

이에 허핑턴포스트는 불교를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해 영어로 된 불교 스테디셀러 12권을 소개했다. 이 중에는 한국어 버전으로 출간된 책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

틱낫한 스님의 저서로 불교 핵심을 소개하고 있다. 사성제, 팔정도에 관한 이야기와 열반으로 가는 3가지 문,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Real Happiness》

명상 수행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샤론 살츠버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1세대 여성 명상 지도자다.

《On The Path To Enlightenment》

과학자 출신의 마티유 리카르 스님의 선집으로 역사상 유명한 불교 스승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다. 책에서는 마음, 이타주의, 명상, 내 앞의 장애와 역경을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Zen Mind, Beginner's Mind》

한국어 버전 《선심초심》은 일상 속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스즈키 슈류 선사는 처음으로 서구에 동양 불교의 선사상을 소개했던 인물로 선 수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 힘썼다. 내용은 쉽고 단순하지만 심오한 가르침을 다고 있으며, 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와 이해를 설명하고 있다.

《When Things Fall A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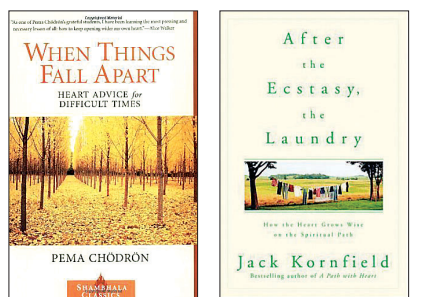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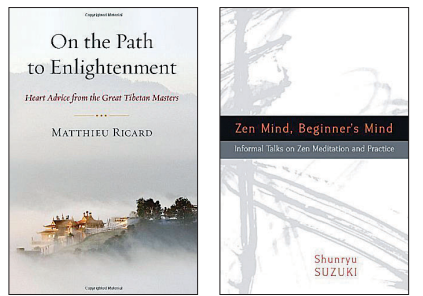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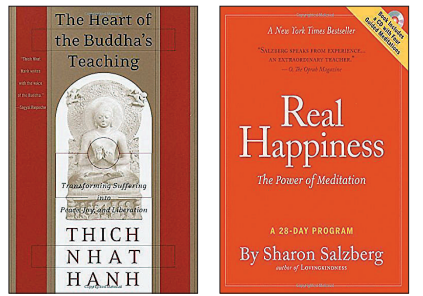
한국어 버전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는 티베트 불교계의 대표적인 여성 승려이자 금강승 수행을 완성한 최초의 미국인인 페마 초드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0여 년 동안의 강연을 묶어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위안이 될 것이다.

《Radiant Mind》

진 스미스가 불교 가르침과 경전의 핵심 등을 모아 만든 책이다. 책에는 달라이라마, 틱낫한, 잭콘필드 등의 설법을 담고 있다.

《Being Upright》

저자 램 앤더슨이 선불교의 기초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10가지 계율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책은 자비심과 연민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윤리적 실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불교를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해 영어로 된 불교 스테디셀러 12권을 소개했다.

천법을 제공하고 있다.

《The Poetry Of Zen》

샘 하밀과 JP 시튼이 공동 저술한 책으로 20세기 초 중국과 일본에서 널리 유행하던 선시(禪詩)를 소개하고 있다.

《After The Ecstasy, The Laundry》

한국어 버전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은 수행과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들을 담은 책이다. 수행의 각 단계마다 몸과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현상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The Illustrated Encyclopedia Of Buddhist Wisdom》

삼화로 구성돼 있어 초심자들에게 유용하다. 시타르타 왕자와 불교의 전파, 불교 고승들의 가르침 등을 담고 있다.

《Nothing Holy About It》

선 불교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당신은 기록하고 신성한 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불성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한다.

《Mindfulness In Plain English》

우리는 '마음챙김'에 대해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Mindfulness In Plain English》에서는 핵심적인 안내와 마음챙김 지도를 함으로써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버나비市, 4억 원 규모 사찰에 '철거 명령'

"농업진흥지역,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

갑작스런 불합리 통보에 주지 및 신도 고초

캐나다 BC(British Columbia) 주(州)에 위치한 약 4억 원 규모 사찰이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해당 사찰이 위치한 곳이 농업진흥지역이며,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이 시(市)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 당국의 통보가 갑작스런 결정에 따라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철거 이유가 타당치 않단 점에서 논란이 있다.

'National Post' 3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BC 주 버나비(Burnaby) 시(市)는 2014년 말 익명의 제보를 받고 해당 사찰에 대한 건축물 준공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그들은 사찰에 대해 철거 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행 시점까지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갑작스런 철거 통보에 창건주이자 주지 스님인 르 투안(Le Thuan) 스님은 고초를 겪고 있다. 1988년 필리핀 난민 캠프로 탈출한 베트남 출신 승려 르 투안(Le Thuan) 스님은 2002년 약 95만

달러(한화 약 11억5000만 원)를 주고 버나비 시 지역에 위치한 땅을 매입, 사찰·홀·다이너룸 등을 차례로 지으며 건물 규모를 확장했다. 이에 사찰은 현재 정기 법회에 100여 명 이상, 특별 행사 때는 1,000여 명 이상 방문할 만큼 성장했다.

'National Post'는 "시 당국이 철거 허가서 없이 일부 구조물을 무단 철거한 후에야 비로소 스님과 신도들을 법정에서 소환했다"면서 "현재 스님은 사찰로부터 100km 가량 떨어진 칠리웍(Chilliwack) 지역에 임시 거주 중이며, 불상을 비롯한 사찰 재산들은 프레이저강(Fraser River) 인근에 흩어져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철거 방침은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상 이용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제외하면 다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원인이다.



버나비 시(市)가 베트남 출신 르 투안 스님의 사찰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National Post'는 "투안 스님은 농지보존지역의 일부에 블루베리 등 작물을 수확하고 있다"며 "그는 사찰 운영과 농업 지역을 세분·이용하고, 시 농업토지위원회로부터 토지이용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 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00m 인근에 중국계 복음 성경 교회, 200m 이내에 크리스나 힌두교

사원이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원에 대한 철거 처분을 수용기 어렵다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National Post'는 "주변 토지의 상당 부분이 골프장, 야구장 등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나비 시는 자진 철거 기간 120일을 연장 부여할 뿐 다른 대안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승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집입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염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 불교 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 식물성입니다.

규격 : 590x18mm
연소시간 : 60~70시간

실의 양초 공양집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에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 766-0242 / 팩스 031) 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